

*** 박물관 관람경험의 특성과 시대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eriential Characteristics of Museum Visit and Its Periodical Implications

김민아*/ Kim, Mina

최윤경**/ Choi, Yoon-Kyung

Abstract

This thesis is focused on the visitors varied experiences of the current museum architecture. The current trend and periodical development of visitors experiences are discussed by analyzing the factors such as the external symbol scheme, the exhibition space scheme, and the visitors circulation scheme which are involved with a visitors experience and thus classifying the experiences related to each sample museum. Examining and providing logical descriptions on each of the schemes helps comprehend the visitors varied experiences. This research, which deals with thoroughly understanding a museum as an architecture followed by taking visitors experiences into account, is aim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visitors experiences in the course of designing a museum.

The above-mentioned types of combination applied to each museum chosen for the research help understand the following :

National museums show predominance of specific visitors experiences. As for the external symbol scheme, most of national museums have adopted the temple type, whereas international museums have equally adopted with the temple type and the showroom type which are characterized by its dedication to function and being in balance between contents and formalities.

키워드 : 관람경험, 외관의 상징체계, 전시공간의 구성체계, 관람동선 체계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박물관 건축의 외관의 상징체계와 전시공간 구성체계, 관람동선 체계의 해석을 통하여 관람경험의 의미(implications)를 찾아내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것이 어떠한 양상을 가지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즉, 내용물과 그것을 담는 용기간의 관계에서 관람객의 관람경험이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특성과 변화에 따라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가를 파악하는데 있다.

역사적으로 근대 건축의 정신이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고전적 사원이나 르네상스 궁전, 또는 중세 교회 같은 다른 종류의 건축에서 차용된 역사적 양식이 박물관 건축의 외관을 이루었다. 이러한 경향은 1930년 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양

식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전시공간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다. 닫혀진 방의 연속이나 긴 갤러리의 이음으로서의 전시실은 그것이 내포한 폐쇄성, 긴 동선 등의 전근대적인 특성으로 인해 부인되었고, 최근까지 박물관¹⁾은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따라 공간해석의 다변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한 본 연구가 가지는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추출한 관람경험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각각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관람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기본 틀이 될 것이며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이 될 것이다.

둘째, 분석 기준에 따른 국내·외 사례 박물관의 유형분류를 통하여 관람경험의 경향과 시대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려 한다. 이는

* 정회원,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실내건축학과 졸업, 시공테크 근무

** 정회원,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건축학박사

***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특정기초연구(98-0002-04-01-3)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1) 엄밀하게 '박물관'은 '미술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에 의하면 고고학 자료, 미술품, 인문·자연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진열하여 일반에 전시하는 곳을 일컫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박물관'을 일반적인 의미의 박물관·미술관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관람자의 체험적 움직임의 관점에서 공간의 가치와 관람경험의 의미를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궁극적으로는 유형분류를 바탕으로 국내·외 박물관을 비교·분석하여 박물관 건축의 보다 깊은 이해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박물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차후 박물관 계획 시 하나의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건축공간²⁾이라는 실체화된 대상은 인간이 직접 지각을 함으로써 체험을 통한 과정으로부터 미의 가치를 밝힐 수 있다. 다시 말해, 작가-건축물-관람객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 작용 속에서 전시대상이라는 매개체가 개입되어 일어날 수 있는 전체적인 과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미의 가치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용하는 여러 요소들의 상관관계 속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연구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체계의 해석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관람경험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의미를 밝혀내는 과정이 되며, 이는 체계의 해석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국내·외 일반 건축전문지와 인테리어 전문지, 박물관과 관련된 단행본)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분석을 행하였다.

공간의 연구대상 범위로서는 박물관 안에서 실제로 전시가 이루어지는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공간을 중심으로 한정한다.

2. 박물관 관람경험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

2.1. 분석의 출발점

관람경험이란 관람자의 움직임을 통한 공간의 이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관람자는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공간체험을 할 수 있는데 박물관의 관람경험은 박물관 건축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건축 외관의 상징체계와 전시공간 구성체계, 관람 동선체계뿐만 아니라 전시품은 물론, 건축 내외의 재료, 조명, 색채 등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박물관 건축을 형태와 공간으로 구분했을 때는 외적 표현인 형태가 시각적인 조형성으로 인해 그 인식도가 우선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는 결국 공간이라는 내적 표현과 연관되며, 전시공간의 경우에는 공간의 형식에 따라 관람경험이 달라지게 되므로³⁾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또한, 박물관은 관람객이 움직여야만 하는 특수한 기능을 수반하는 건물이라는 점에서 정보를 강제적으로 획득하게 되느냐, 자유롭게 취사선택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관람경험이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동선도 중요 요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evin(1983)의 외관의 상징 개념적 공간의 유형 분류, Glaeser(1968)의 동선에 따른 공간 형태적 유형 분류, Searing(1986), Montaner & Oliveras(1986)의 공간 형식에 따른 두 가지 견해의 유형 분류 등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서, 공간의 유형과 형식을 바탕으로 박물관의 외관의 상징체계, 전시공간 구성체계와 관람동선 체계를 관람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선정하였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외관에 있어서는 사원 유형과 상가 유형, 전시공간 구성체계는 개실형과 개방형, 관람동선 체계는 선택적 순환체계와 강제적 순환체계로 특성에 따라 나누어 봄으로써 분석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2.2. 외관의 상징체계

(1) 사원 유형(temple type)

관람객들이 일상의 생활에서 벗어나 순수한 미학적인 경험을 획득하는 곳이며 따라서 탐미적인 의도가 담겨있는 건축가의 작품이 이러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조형적 경향에 있어서는 국외와 국내를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먼저, 국외의 경우 양식적 표현이 나타나는 박물관을 예로 들 수 있다. 양식적 표현이란, 예술품의 수집이 활성화되면서 소위 양식주의 건축이론이 주류를 이었던 17세기에 국가의 번영과 권위상징의 표현방법의 하나로써, 고전이나 기념비적 양식을 고전주의 건축언어를 통해 표현한 것을 말한다. 열주, 페디먼트(pediment), 포티코(portico)등의 요소의 사용과 중정의 로트다를 중심으로 강한 대칭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징적 표현들은 작가의 박물관 건축을 위한 독창적 디자인 작업을 통해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대학 등의 건축유형과 함께 지식의 보고로서 그 의미를 상징화하려는 요구와 의도에 의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 의미를 상징화하려는 요구와 의도는 그들 자신의 역사적 건축 양식의 철저한 이해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평가 아래, 장중함과 우아함을 주는 서양고전 건축언어를 통한 양식주의로 나타났고 그것은 강한 상징성으로 부각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주로 전통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초기의 박물관은 대부분이 그 평면에 있어서 대칭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물론 그 입면 구성에서도 옛 고건축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문화의 현대적 구현을 직설적인 묘사를 통해 과시적 기념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후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박물관 건축의 조형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평가를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접근방법은 박물관의 개념을 먼저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그 내부 환경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위용적 조형성을 벗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 사원 유형에서의 외관은 양식적 표현, 전통적 표현을 통틀어 어떠한 의도된 기념성을 내포한 것으로서 정의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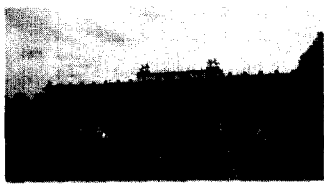
(2) 상가 유형(Showroom type)

사원 유형과는 상반된 개념의 상가 유형은 일상 생활의 연장으로

2) 여기에서 미술관의 기본적인 중요한 역할과 임무인 연구와 소장, 교육부분은 이 논문의 관점인 관람객의 공간체험 부분에서 벗어나고 있으므로 건축공간의 논지에서 제외한다.

3) 최윤경, 미술관 공간구조의 연대기적 유형학,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6호 통권 92, 1996

서 가볍게 즐기고 여가를 선용하는 목적으로 계획된 박물관을 지칭할 수 있다. 따라서, 조형적 경향에 대해서는 사원 유형과 같이 규정짓기는 어려우나 기능적 표현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근대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서양의 박물관 건축은 양식주의의 기능적 부당함을 인식하여 기능성 회복을 위해 평면구성에 있어 융통성의 추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박물관 내부 공간의 기능성 논의와 더불어 형태와 내용의 진정한 일치를 이루고자 하였다. 외관에 나타나는 특성들은 앞의 예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변의 건물로부터 특별한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서도 문화적 품위를 유지하려는, 모더니즘의 면모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단순한 외관임에도 박물관임을 알리는 파사드의 창문이라든지 사인들이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 이들 박물관들은 대개 도심에 입지 하여 일과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잠깐 들릴 수 있도록("museum break") 한다는 점이 특성이다.



<그림 1> 사원 유형
Altes Museum



<그림 2> 상가 유형
The Museum of Modern Art(New York)

2.3. 전시공간의 구성체계

(1) 개실형(durandesque type)

Boulee의 미술관 계획안(1783)과 같이 대형 로툰다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전시공간으로 구성된 유형을 말한다. 상호 균질의 관계를 가진 실들은 다른 실과는 독립적으로 실 자체의 완성된 전시형식을 가지는데 이는 연속적인 전시공간보다 전시전달의 효과나 구조적으로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하여 전시공간을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통해 공간적으로 분절되기 시작하였다.⁴⁾ 개개의 실들은 소장품의 분류(조각, 회화, 건축)에 따라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위계를 형성하고 있어 공간의 구성을 통해서 지식이 구체화되어 표현된다.

(2) 개방형(exposition type)

19세기말 유행하였던 박람회에서 유래된 것으로 초기의 예로는 팩스톤(Paxton)의 수정궁(Crystal Palace, 1851)을 들 수 있다. 이 유형은 20세기 중반에 다시 등장하여 "광대하고 투명한 용기(container)"를 가진 박물관 즉, 자유평면형(free plan)의 공간개념을 통해서 개화하였다. 전시공간의 연속성은 범용적인 기능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시된 입시성과 가변성은 박물관 건축이 가져야 하는 다양성과 변화의 수용을 암시한다고 하겠다.⁵⁾ 시각적·공간적으

로 통합이 된 공간구성으로 단순히 주어진 지식을 그 자체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지에 따라 취사선택하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다. 질서나 규범이 없어 전시물의 분류를 공간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우며, 지식은 혼재적(heterogeneous)이다. 예를 들어, 회화와 조각이 통합적인 공간에 배열될 수가 있으며 관람객은 주어진 예술품을 스스로 분류하여 질서를 만들어가며 관람동선은 서로 다른 차별화 된 형태의 개체적인 경험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현대 예술이 담고있는 다양함과 복잡성을 정형적인 틀 속에 가두기보다는 변화하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전시물의 효과적인 표현에 있어 불합리성을 지적 받고는 있으나, 예술품의 다채로운 변화와 미술관의 대중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2.4. 관람동선 체계

(1) 선택적 순환체계

기본체계는 유도체계에 있으나 중간에 빠져 나올 수도 있고 임의로 경로를 반복할 수도 있는 방식이다. 두 개 이상의 출입구를 갖고 있어 관람객은 특정의 동선을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 이동과 관람 동선을 분리한 개실형이거나, 자유평면형(free plan)의 자유동선이거나 그 구분이 애매하며,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전시물의 관람에 있어 관람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전시성격에 따라 특정한 관람 목적에도 부합될 수 있다. 그러나 동선상의 자유로움 때문에 혼란함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유도동선은 필요하다. 그리고 항상 '자유로운 범위'의 체계에서는 단 한번의 방문으로 모든 것을 다 보기 어려우며,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박물관을 여러 차례 방문할 필요가 있다.⁶⁾ 이러한 선택적 순환체계에서는 관람객이 여러 종류의 전시품들을 자유롭게 감상하며 상호 비교(혼재적 전시체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간적 대응의 필요성은 최근 자연, 과학계 박물관들이 기존의 학술적, 분류별 전시 방법을 탈피하고 자연과 과학의 총체적 주제를 설정하여 대중에게 더욱 친숙한 박물관으로 다가서기 위하여 많이 나타난다. 최근에 네덜란드 국립 자연사 박물관(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Netherland Leiden, Ir. Fons Verheijen, 1998개관)도 이러한 자연에 대한 총체적 현상과 자연의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한 대형 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동시적 공간구조를 설정하고 있다.

(2) 강제적 순환체계

일반적으로 전시체계의 순위가 중요하여 일련의 전시물들이 하나의 연속되는 학과별로 순서 있게 전시(분류학적 전시체계)되는 곳에서 동선은 다소 전문적이며 의도적인 강제성을 갖는다. 이로서 관람자는 전시 관람상 혼돈을 피할 수 있고 효율이 높은 전시 전달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자칫 연속된 동선에서 심리적 지루

4)최윤경, 전계서, 1996, p.32.

5)최윤경, 전계서, 1996, p.32.

6)Manfred Lehmbruck, 박물관 건축과 환경, 국립중앙박물관, 1995, pp.104-107.

함을 느낄 수도 있다. 또한 이동과 관람이 동시적인 것이 대부분이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까지는 '안내관람(conducted tour)'의 개념을 수반하게 된다. 다양한 건축형태에 의하여 다소 눈에 떨 정도로 '유도'될 수 있는데, 판에 박힌 방식으로 순환하게 된다.

이러한 공간적 요인들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호 관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조합에 따라 8개의 유형으로 분류<표 1> 가능하다. 이는 다음 장에서 이루어질 국내·외 박물관의 사례 비교·분석을 위한 틀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틀에 따라서 관람경험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표 1> 관람경험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들의 조합에 따른 유형

TYPE 1	사원 유형(template type) + 개실형(durandesque type) + 선택동선
TYPE 2	사원 유형(template type) + 개실형(durandesque type) + 강제동선
TYPE 3	사원 유형(template type) + 개방형(exposition type) + 선택동선
TYPE 4	사원 유형(template type) + 개방형(exposition type) + 강제동선
TYPE 5	상가 유형(showroom type) + 개실형(durandesque type) + 선택동선
TYPE 6	상가 유형(showroom type) + 개실형(durandesque type) + 강제동선
TYPE 7	상가 유형(showroom type) + 개방형(exposition type) + 선택동선
TYPE 8	상가 유형(showroom type) + 개방형(exposition type) + 강제동선

3. 사례 분석

3.1. 사례박물관의 선정) 및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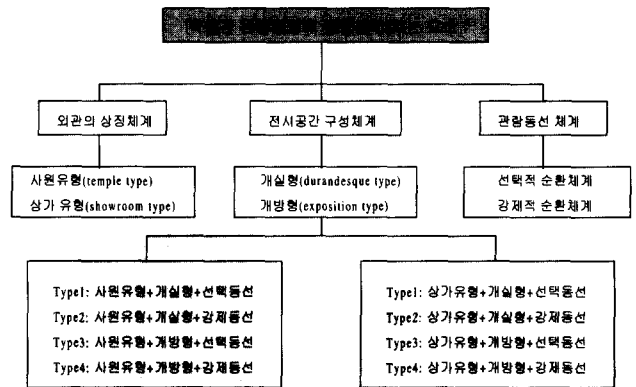
사례분석 대상은 국내·외 일반 건축전문지(건축사, 플러스, 건축과 환경, 건축문화,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al Review와 인테리어 전문지(인테리어), 그리고 박물관과 관련된 단행본(박물관/미술관 건축총서 I·II·III)에 게재된 것)을 대상으로, 국외 사례는 39개, 국내 사례는 42개로 총 81개를 선정하였다. 국외 사례의 29개와 국외 사례 퐁피두 문화센터 국립현대미술관(Centre Georges Pompidou)는 직접 현장방문을 하였으며, 나머지 사례 박물관들은 도면과 사진을 통한 문헌자료에 의하여 분석을 행하였다.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관람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의한 것은 다음의 분석의 틀<그림 3>으로 정리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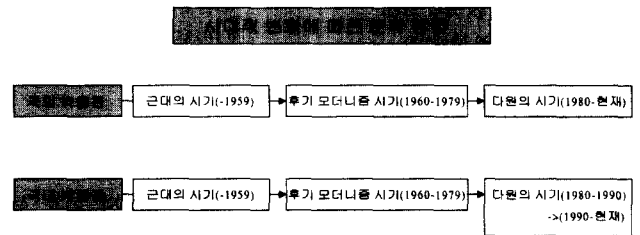
시대적 변화에 따른 분석 방법에서는 국외와 국내의 사례 박물관을 같은 시간적 축선상에 놓고 적용시켜 구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외국 박물관에 비해 국내 박물관은 197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그 면모를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흐름을 보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분류의 기준은 외국 박물관 변천을 기준⁹⁾으로 삼고자 한다.

7)분석 방법에 의해 유형으로서 판단이 쉽지 않은 사례는 제외하였음.
8)서상우, 세계의 박물관·미술관, 기문당, 1995 특정 책자에 소개된 박물관을 사례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무리가 될 수도 있겠으나 국내 유일의 박물관·미술관 총서라는 점에서 선정하였음.
9)서상우, 세계의 박물관·미술관, 기문당, 1995

부터 1959년 이전까지) b) 후기모더니즘의 시기: 다채로운 전시체계와 전문화와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1960년대 이후부터 1979년 이전까지) c) 다원의 시기: 사회적·문화적 의미의 확대가 강조되는 시기(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국내의 경우에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문화시설이 한 단계 발전하여 다원화되고 대중화된 사회적 요구에 걸맞는 중·소규모의 문화시설들이 대거 등장한다. 따라서 다원의 시기를 1980년에서 1989년, 1990년에서 현재까지로 세분화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면 다음의 분석의 틀<그림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3> 관람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의한 분석의 틀



<그림 4> 시대적 변화에 따른 분석의 틀

3.2. 관람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의한 유형분석

전체 81개의 사례를 외관의 상징체계, 전시공간 공간체계, 관람동선 체계에 따라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국외 박물관과 국내 박물관이 <표 2>, <표 3>와 같은 결과로 정리되었다.

<표 2> 국외 박물관 관람경험 유형분류

외관상징 체계	전시공간 구성체계	관람동선 체계	사 례	개수 (39)	TYPE
사원 유형	개실형	선택적	US-01, MX-01, JP-04, JP-07, TW-01	5	1
		강제적	GM-01, GM-05, MX-02, FR-02	4	2
	개방형	선택적	GM-02, US-08, JP-03, SP-01	4	3
		강제적	US-02, US-06	2	4
상가 유형	개실형	선택적	US-05, US-09, US-11, US-12, US-13 US-14, GM-04, GM-06, GM-07, GM-09, UK-01	11	5
		강제적	JP-01, JP-02, JP-05, JP-06	4	6
	개방형	선택적	AU-01, US-03, US-04, US-09, US-10, FR-01, GM-03, GM-08, NT-01	9	7
		강제적			8

<표 3> 국내 박물관 관람경험 유형분류

외관상 정체	전시공간 구성체계	관람동선 체계	사 례	개수 (개)	TYPE
사원 유형	개실형	선택적	KR-01, KR-02, KR-06, KR-10, KR-14, KR-15, KR-16, KR-20, KR-21, KR-23, KR-25, KR-30, KR-31, KR-33, KR-34, KR-36, KR-37, KR-39	18	1
		강제적	KR-03, KR-04, KR-09, KR-11, KR-13, KR-17, KR-19, KR-38	8	2
	개방형	선택적	KR-18, KR-27	2	3
		강제적	KR-12	1	4
상가 유형	개실형	선택적	KR-08, KR-22, KR-28, KR-35, KR-40, KR-41, KR-42	7	5
		강제적	KR-05, KR-29	2	6
	개방형	선택적	KR-07, KR-24, KR-26, KR-32	4	7
		강제적	.	.	8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외 박물관의 관람경험 유형을 비교·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외 박물관에서는 Type5(28.21%)가 가장 빈도가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고 국내의 경우에는 Type1(42.86%)이 가장 빈도가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외와 국내 박물관이 외관의 상징체계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다시 말해 국외의 경우 진열실 유형(showroom type)이, 국내의 경우 사원 유형(temple type)이 우세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유형은 국외의 경우 Type7(23.08%)의 유형으로 파악되었고, 국내의 경우에는 Type2(19.05%), Type5(16.67%)로 파악되었다. 국외의 경우 개실형(durandesque type)과 개방형(exposition type)의 차이가 있을 뿐 여전히 상가 유형과 선택적 순환체계의 유형이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외관의 상징체계와 동선에 있어 서로 대조를 이루는 유형이 각각 일반화된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Type1과 비교해 볼 때는 빈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국외에 비해서는 전통적 표현이 강한 사원 유형이 눈에 띄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이는 국내의 경우 중앙 집행에 의존하는 구조적인 문제, 권위주의 등으로 「국립」형식의 박물관이 많이 건축되어 왔고 그에 따라 형태 중심의 전통 개념 표현과 기념성 건축의 추구에 기인하는 경향이라 해석된다. 셋째, 국외의 경우 외관의 상징체계와 상관없이 공간구성에 있어서 개실형이 20개(52.28%)의 사례(Type1, 2, 5, 6), 개방형이 19개(48.72%)의 사례(Type3, 4, 7)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개실형이 전체 42개의 사례에서 35개(83.33%)로 전형적인 공간구성 유형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시전달의 효과 면에 있어서 개방형에 비해 구체적인 관람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어진 유형이라 파악된다. 넷째, 관람동선 체계에 있어서는 국내·외의 경우 모두 선택적 순환체계가 우세한 경향을 나타내는데(국외 29개(74.36%), 국내 31개(73.81%)) 이는 관람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유롭고 극단적인 개체경험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라 해석된다.

정리하면, 국외 미술관의 경우 기능과 접근성을 우위에 두고 있

는 상가 유형의 외관의 상징체계에 선택적인 자유로운 관람경험을 제공하는 유형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파악되는 반면, 국내 박물관은 아직까지는 사원 유형의 외관의 상징체계에 일정하게 배열된 전시물들을 선택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유형이 일반적인 경향이라 파악된다.

3.3. 시대적 변화에 따른 관람경험 유형분석

앞 절에서는 전체 81개의 사례를 관람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분석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앞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분석 방법에서 설명했듯이 ① 근대의 시기 ② 후기모더니즘 시기 ③ 다원의 시기의 시기를 거치면서 외관의 상징체계, 전시공간 공간체계, 관람동선 체계에 따라 관람경험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는 각 시기의 국외 박물관과 국내 박물관이 <표 4>, <표 5>과 같이 정리되었다.

<표 4> 국외 시대별 유형분류

유 형	근대의 시기 (~1959)	후기 모더니즘 시기 (1960-1979)	다원의 시기 (1980-현재)
TYPE 1	US-01	MX-01	JP-04, JP-07, TW-01, SP-01
TYPE 2	GM-01		MX-02, FR-02, GM-05
TYPE 3		GM-02, US-08, JP-03	
TYPE 4	US-02	US-06	
TYPE 5	US-05	US-07	US-11, US-12, US-13, US-14, GM-04, GM-06, GM-07, GM-09, UK-01
TYPE 6	JP-01	JP-02	JP-06, JP-06
TYPE 7	US-03	FR-01, GM-03, US-04, US-09, AU-01	NT-01, US-10, GM-08
TYPE 8	.	.	.
합 계	6	12	21

<표 5> 국내 시대별 유형분류

유 형	근대의 시기 (~1959)	후기 모더니즘 시기 (1960-1979)	다원의 시기 (1980-1999)	다원의 시기 (1990-현재)
TYPE 1		KR-01, KR-02, KR-06	KR-10, KR-14, KR-15, KR-16, KR-20, KR-21	KR-23, KR-25, KR-30, KR-31, KR-33, KR-34, KR-36, KR-37, KR-39
TYPE 2		KR-03, KR-04	KR-09, KR-11, KR-13, KR-17, KR-19	KR-38
TYPE 3			KR-18	KR-27
TYPE 4			KR-12	
TYPE 5		KR-08	KR-22	KR-28, KR-35, KR-40, KR-41, KR-42
TYPE 6		KR-05		KR-29
TYPE 7		KR-07		KR-24, KR-26, KR-32
TYPE 8		.	.	.
합 계		8	14	20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국내·외 박물관의 관람경험 유형을 비교하여 그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의 시기 국외의 경우, 특정한 유형을 선호하기보다는 다양한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국내의 경우는 선정된 사례가 없었다. 둘째, 후기 모더니즘 시기 국외의 경우는 Type7(41.67%)이 가장 많은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 유형이다. 근대의 시기에 비해 외관의 상징체계에 있어 상가 유형이 일반화되는 경향이며 개방형 공간구성에 선택적 순환체제로 자유로운 관람경험을 제공하는 유형이 우세하다.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Type1이 37.50%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Type2가 25.00%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사원 유형에 개실형의 공간구성이 일반화된 경향으로 파악된다. 특히, 국외 사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Type2(사원 유형+개실형+선택적 순환체제)의 빈도로 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특정한 목적에 의해 배열·전시된 전시물들을 미리 정해진 순환체제로 유도함으로써 관람객들의 동일한 관람경험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다윈의 시기에는 국외의 경우 여전히 상가 유형의 외관의 상징체제에서 공간구성과 순환체제가 다양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하면 공간구성 측면에서 전 시대에 비해 개실형의 전시공간 구성체계가 높은 빈도(Type5: 42.11%)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시물의 효과적인 배열과 효율적인 관람경험의 추구라는 점에서 수용되고 있는 변화라고 해석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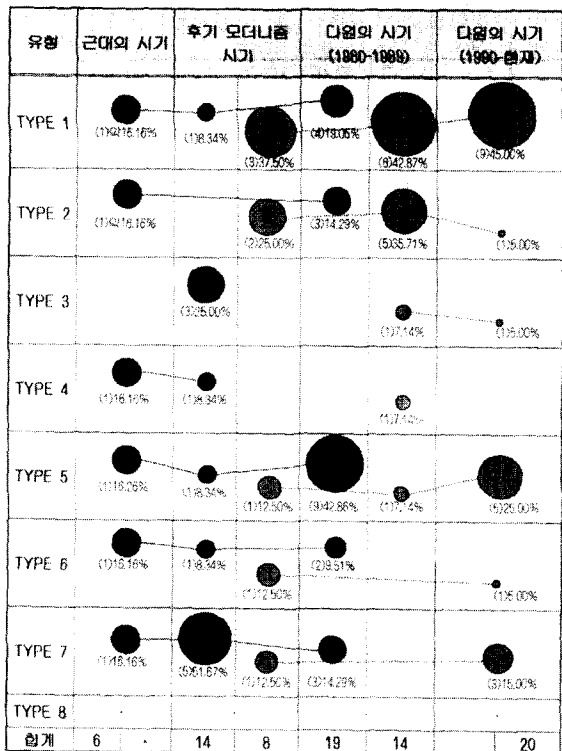
국내의 경우 다시 두 시기로 나누어보면, 먼저 1980-89년까지의 시기에는 Type1이 42.87%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1990-현재까지의 시기에는 Type1의 45.00%라는 높은 빈도보다는 Type5의 25.00%라는 증가가 주목할 만 하다. 전 시대에 비해 상가 유형의 외관이 눈에 띄게 많이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박물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확대에 따른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유형들도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기 시작함을 볼 때, 국내 박물관도 마야호르 다윈의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해석된다.

3.4. 소결

이상에서 박물관 관람경험 유형분류 및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시된 요소에 의한 분석과 시대에 따른 분석을 행하였다. 전체적인 관람경험과 시대에 따른 변화에 있어 국외와 국내의 사례 박물관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분석에 따른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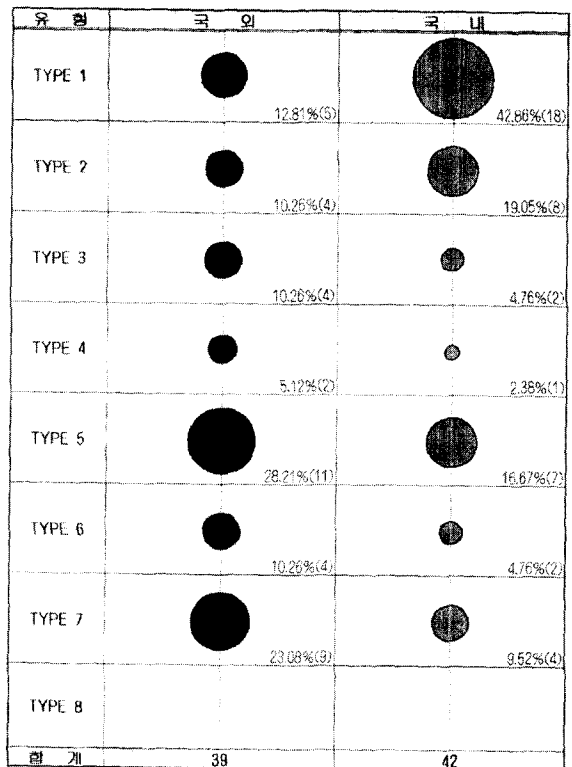
전체적인 관람경험에 있어서는 국외 미술관의 경우 기능성과 접근성을 우위에 두고 있는 진열실 유형의 외관의 상징체계에 선택적인 자유로운 관람경험을 제공하는 유형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파악되는 반면, 국내 박물관은 사원 유형의 외관의 상징체제에 일정하게 배열된 전시물들을 선택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유형이 일반적인 경향이라 파악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표 6>, <표 7>

<표 6> 국외, 국내 박물관 관람경험 유형분석



국외 ● 국내 ○

<표 7>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내, 국외 박물관의 관람경험 유형분석



4. 결론

본 연구는 현대 박물관 건축의 다양한 관람경험에 관한 연구이다. 관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외관의 상징체계와 전시공간 구성체계, 관람동선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선정된 사례 박물관의 관람경험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이는 곧 체계의 논리적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관람경험의 의미로서 정리 가능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관람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선정된 외관의 상징체계, 전시공간 구성체계, 관람동선 체계의 조합은 8가지의 유형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는 각각 다양한 관람경험을 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관람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유형을 실제 선정된 국내·외 박물관에 적용시켜 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① 국내·외 박물관을 분석하여 비교해 보았을 때 국내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면에서 편중된 관람경험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외관의 상징체계의 경우 국외에서는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내용과 형태의 일치 추구하고 접근성 면에 있어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상가 유형이 많으면서도 사원 유형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사원 유형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었다. 단지 전통표현의 묘사를 통한 기념적인 건축물은 더 이상 시대가 요구하는 관람경험을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이다. 단순하고 직선적인 해석방법에 의한 사원 유형은 관람자로 하여금 편하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 기념성과 업적의 과시를 나타내려는 것에 더 치중해 왔기 때문이다. 대중과의 다양한 교류 및 일상적인 방문의 기회를 높이는 상가 유형의 증가는 시대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다할 것으로 본다. 일상 생활에서 생활과 예술의 거리를 좁혀줄 수 있으며 현대 박물관의 활동을 보다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건물을 재활용하거나, 복합 기능 건축의 개발 등이 하나의 증진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② 편중된 외관과 마찬가지로 전시공간 구성 면에서도 좀 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시대적 변화는 박물관의 관람경험에 있어 새로운 공간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다양하고 수많은 전시물들을 집적하게 뒤과 동시에 이들을 효과적으로 전시·전달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이다. 더구나 동시에 많은 관람자가 소장품을 감상하게 되었기 때문에 각자가 어떤 전시실을 보고 싶어하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명확한 공간구조가 필요해졌다. 더 이상 궁전이나 그 부속건물에서 비롯된 고전적인 형식의 전시공간 구성체계는 이러한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으며 새로운 상황에 적절한 공간형식이 요구된다. 많은 양의 전시물을 체계적으로 전시하는 동시에 각각이 선택적으로 관람되어질 수 있어야 하며, 각각의 전시공간이 단절되지 않고 적절한 호기심을 유지함으로써 관람자가 지루하거나 반복적인 전시경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근간에 나타나고 있는 전시물들의

특성 또한 과거의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형태적·재료의 변화로 인해 상호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존의 박물관이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전시품에 대응한 건축 개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상가 유형 박물관의 증가와 함께 개방형 공간구성은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예술이 담고 있는 다양함과 복잡성을 정형적인 틀 속에 가두기보다는 변화하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방형의 공간체계가 유리함을 생각할 때 앞으로는 좀 더 공간체계의 다양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대적 변화에 따른 관람경험을 분석해보면, 먼저 근대의 시기에는 일반화된 유형을 찾을 수 없었다. 후기 모더니즘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국외의 경우는 '상가 유형+개방형+선택적 순환체계'(Type7)로 자유로운 관람경험을 강조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사원 유형+개실형+선택적 순환체계'(Type1)가 일반화된 경향으로 파악된다. 다윈의 시기에는 국외의 경우 여전히 상가 유형의 외관에서 다양한 관람경험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데 공간 구성 측면에서 볼 때는 개실형의 공간구성이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국내의 경우는 다윈의 시기를 더욱 세분화하여 1990- 현재까지의 시기에 상가 유형이 눈에 띄게 증가했음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박물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확대에 따른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유형들도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 점차 다양한 관람경험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기존의 박물관이 해결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전시품에 대한 변화이며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서상우, 박물관 미술관 총서, 기문당, 1995.
2. Brawne, M. The New Museum: Architecture and Displa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5.
3. Glaeser, L. Architecture of Museums. New York: The Museum of Modern Art, 1968.
4. Levin, M.D. The modern Museum: Temple or Showroom, Jerusalem: Dvir Publishing House, 1983.
5. Montaner, J. & Oliveras, J. The Museum of the Last Generation. London: Academy Editions, 1986.
6. Searing, H., The development of a museum typology, Stephens, S. (Ed). 1986.
7. 김기현, 우리 나라 국·공립 박물관 건축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1993.
8. 김민재, 현대 뮤지엄 건축공간의 미적 체험에 관한 연구, 국민대 박사논문, 1998.
9. 조은실, 박물관 관람공간구성의 유형분류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1998.
10. 최윤경, The Spatial Structure of Exploration And Encounter In Museum Layouts,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박사논문, 1991.
11. 최윤경, 미술관 공간구조의 문화적 의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3. 10.
12. 최윤경, 미술관 공간구조의 연대기적 유형학,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6. 6.

<접수 : 2000. 11. 1>